

민선 7기 부산시의 2년차 행정 키워드는 '소확행'이다. 2년차부터는 실질적인 '시민행복'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다짐이다. 도시비전 실현을 위한 굵직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소확행'을 적극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사진은 지난 6월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정책박람회 가운데 소확행을 주제로 한 행사 모습).

"시민이 행복해 한다면 무엇이든 OK"

부산시민 누구나
'작지만 확실한 행복' 누릴 수 있게

난임 부부 지원·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횡단보도 투광기·청년 월세 지원…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중심

■민선 7기 부산시 '소확행' 7대 사업

"소확행 확산으로 시민 행복시대 연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7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도시비전으로 선포하며 힘차게 출범했다. 그리고 1년 동안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등 부산 발전을 견인할 네 개의 든든한 큰 기둥을 확실하게 세웠다. 이들 사업은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들이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부산시민들이 그 파급효과를 직접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소확행', 민선 7기 2년차 핵심 키워드

'소확행'(小確幸). 민선 7기 부산시의 2년차 행정 키워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다. 2년차부터는 실질적인 '시민행복'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다짐이다. 도시비전 실현을 위한 굵직한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소확행'을 적극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부산시장은 지난 3월 올해를 '시민 행복시대 원년'으로 선포, 시민 삶을 먼저 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시정을 통해 시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소확행'을 행정 키워드로 삼고, 작지만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만족도 높은 다양한 사업을 7대 분야로 세분화·체계화해 추진에 나선다. 7대 분야는 △우리 가족 '**사랑행**' △대중교통 '**편리행**' △너도 나도 '**안전행**' △함께해서 '**따뜻행**' △소상공인 '**든든행**' △이제 모두 '**안심행**' △우리 모두 '**함께행**' 등이다.

시민제안 소확행 - 대 상



청년 행복박스

서두산(청년정책 네트워크)



■ **사업목적**
- 청년이 된 것 축하하고 청년을 사회 주체로 인식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청년들은 청년정책에 대한 효능감 및 인지 저조

■ **사업내용**
- 만 18세가 된 청년에서 청년이 된 것 축하하는 행복박스(종합홍보지 · 생활물품 등) 제공

■ **기대효과**
- 청년정책 효능감 높이고 청년이 부산 주체라는 인식 향상